

## 『개역개정』에서 ‘속’의 용례 검토

서신혜\*

### 1. 시작하며

‘속(贖)’은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조선시대 내내 널리 쓰이던 법률 제도용어이다. 이 용어의 의미와 사용 방식, 백성들의 인지 정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과 잡지에 자세하게 소개<sup>1)</sup>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속’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여러 합성어가 있다. ‘속’의 개념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은 매우 적합하고, 어떤 것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속’은 다른 쉬운 현대어로 대치할 수 없는 개념어이다. 그래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속’ 관련 합성어 ‘**규칙**’을 **정확히 지키며 써야** 궁극적으로 독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 2. ‘속’과 결합해서 만든 단어들

‘속’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값을 지불하다’

\* 한양대학교에서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sh2448@hanyang.ac.kr.

1) 이선희, 서신혜, “개항기 한글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 (2019), 205-231; 서신혜, “복음의 핵심 개념어 ‘속’(贖)”, 『기독교사상』 735 (2020. 3.), 103-113.

라는 의미의 ‘속’과 또 다른 어떤 단어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성경에 쓰인 용어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속죄(贖罪), 속신(贖身): ‘속’은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속죄’와 몸(신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속신’으로 나뉜다.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지어 받을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고, 속신은 종이 상전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속죄나 속신은 속의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속량(贖良): ‘속’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신분의 변화를 얻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속’의 핵심 의미이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하여 ‘죄인’에서 ‘자유인(자주인)’으로의 신분 변화, 속신은 몸값을 지불하여 ‘천인(賤人)’에서 ‘양인(良人)’으로의 신분 변화를 맞는다. 후자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드물다. 값을 치러 양인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인’이 ‘양인’이 되는 결과는 매우 절실한 것이므로, 그것을 드러내어 ‘속’의 ‘결과’를 강조한 단어가 바로 ‘속량’이다.

속전(贖錢), 속물(贖物): 속전은 속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돈이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내면 속물이라고 한다. 속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기 때문에 아예 우리말 단어로 ‘속바치다’라는 말이 널리 쓰였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홍명희(1888-1968)가 192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소설 <임꺽정>에도 ‘이학년은 기묘년 조정암 옥사에 걸려서 장류를 속바치고 면하고 신사년 안처겸 옥사에 또 걸려서 처참을 당한 사람이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속전이나 속물은 속의 ‘방식’이 ‘재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단어이다.

대구속신(代口贖身), 대속(代贖): 종이 자신을 대신하여 종이 될 사람을 상전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값을 치러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구속신(줄여서 대속)이라고 한다. 대(代)는 ‘대신하다’, 구(口)는 ‘입’이라는 의미이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재산’으로 취급했으므로 사람을 세는 단위인 ‘인(人)’을 쓰지 않고 구(口)로 표현했다. ‘대신’ 속한다는 표현이므로 속의 ‘주체’를 강조한 단어이다.

이외에도 ‘속’을 중심에 두고 여러 서술어를 같이 써서 만든 단어들도 많이 있었다. 속전이든 속물이든 ‘바치는’ 것을 강조하여 ‘납속(納贖)’, 속전을 ‘거두는’ 것을 강조하여 ‘수속(收贖)’ 등의 용어가 『경국대전』 등의 조선 법전에 자주 나온다.

성경에서는 조선시대 법전에 나오는 여러 제도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

였고, 기존에 법전에는 없지만 ‘속’이라는 법제 용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를 붙여서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특정한 허물을 나타내는 용어였던 ‘건(愆)’과 속을 결합하여 ‘속건제(贖愆祭)’라는 단어로 표현하고,<sup>2)</sup> ‘장소’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속죄소(贖罪所)’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리고 구속(救贖)도 있다. ‘구하다[救]’와 ‘속하다[贖]’라는 서술어를 병렬한 것인데, ‘속’ 역시도 ‘값을 치러서’ 형벌에서, 혹은 신분에서 ‘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여기에 ‘구하다’라는 의미의 ‘구(救)’를 겹쳐서 씀으로써 해당 뜻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만든 단어이다.

### 3. 『개역개정』에 있는 ‘속’의 용례 검토

필자가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개역개정』에는 ‘속(贖)’이 총 320개 절에서 나온다. 이중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만도 198개 절이다. 신약에서도 이 용어가 자주 쓰여서 84개 절에 나온다. 구절마다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의미를 바로 알 때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있는 대목이다.

‘속’이라는 제도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속’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이 단어를 대신할 다른 ‘쉬운 현대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자어는 쉬운 현대어로 풀이하거나 교체할 것을 고려할지라도, 최소한 ‘속’의 경우에는 속의 의미를 명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동시에 ‘속’을 이용한 합성어도 정확히 표현하여 궁극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을 이용한 합성어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기준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의미를 명확히 살려서 구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다.

#### 3.1. 구속과 속량

‘구속’은 ‘구하다’라는 의미가 뚜렷할 때 쓰고, 속‘량’은 ‘종’이 ‘양인’이 된다는 신분 변화를 강조할 때 쓴다. ‘속량’은 ‘천인’이 값을 지불하여 ‘양인’이 된다는 신분적 변화 결과를 강조한 단어이므로 문맥에 ‘종이 된 상황이 앞서 나올 때’에 사용해야 정확하다. 또 이스라엘 역사상 망국으로 인한 ‘포로됨’이 있었으므로 그런 ‘신분’에서 풀려난다는 의미에서, ‘포로’에

2) ‘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신혜, 이선희, “성경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구약논단』 75 (2020), 150-173 참고.

서 ‘자주민, 자유인’이 된다는 의미로 ‘속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도 ‘**포로**된 상황이 앞서 나오는 문장에서라야 ‘속량’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신명기 7:8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대목은, ‘종 되었던’이라는 명확한 표지가 있어서 ‘속량’이라는 단어 사용이 매우 적합하다.

‘구속’은 앞서 말한 대로 ‘구하다’와 ‘속하다’의 결합이다. 다시 말해, ‘구원+속죄’의 의미 결합이다. ‘싸워서 이겨 구해 내다’는 의미가 명확할 때, ‘주의 능력과 큰 일 행하심’으로 구하시는 의미가 명확할 때, 그런 의미 강조를 위하여 ‘구하다[救]’의 의미를 겹쳐서 써서 만들어낸 합성어가 바로 ‘구속(救贖)’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할 의미가 정확히 강조되는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도 사무엘하 7:23; 역대상 17:21; 느헤미야 1:10 등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사용되었다.

이처럼 속량과 구속은 강조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고, 사용되는 맥락도 다르다. 그런데 현행 『개역개정』에는 이전 『개역』에서 ‘구속’으로 썼던 상당수 단어를 ‘속량’으로 대치하였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을 내면서 발간한 안내서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피하여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 되게’ 하기 위하여 고쳤다면 그 대표적 예로 ‘구속’을 들었다. ‘구속(救贖)’이 ‘구속(拘束)’과 비슷하여 한글전용에서는 피하는 것이 옳다면 구속을 속량으로 바꿨다는 것이다.<sup>3)</sup>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구속’을 대부분 ‘속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속’을 이용한 단어가 총 18개의 절에 나오는데, 이 중 16개의 절은 『개역』에서 ‘구속’으로 썼던 것을 모두 ‘속량’으로 바꾸었다. 시편 19:14; 78:35에서는 ‘구속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속량자’라는 단어가 어색해서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속량’은 속하여 ‘양인, 자유인, 자주민’이 된다는 신분 변화를 강조하는 단어인데, 시편의 시들은 그런 신분변화의 맥락이 없다. 다만 환란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구하다’는 의미가 강조되므로 ‘구속’이라고 쓰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예를 들어 시편 25:22에서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 하였다. ‘환난’에서 구하라는 것이지, ‘종이 되는 것’에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속량’이 될 수 없다. 시편 26:11; 31:5 등에서도 모두

3) 민영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3), 36-37.

‘중이 됨’ 등의 맥락이 전혀 없으므로 ‘속량’이 아니다. 시편 69:18; 71:23; 74:2; 77:15; 103:4; 107:2; 111:9도 그렇다. 이밖에 시편 34:22; 49:8; 130:7, 8의 ‘속량’은 ‘구속’이라 하든지 그냥 ‘속’이라고 하든지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시편의 이들 구절에 나오는 ‘속량’은 다시 ‘구속’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시편뿐 아니라 『개역개정』 신약에서 ‘속량’으로 번역된 것들의 대부분도 ‘중’으로부터의 신분 변화가 아니라 ‘구하심’이 강조되는 맥락이므로 ‘구속’으로 쓰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각 절 표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덧붙여 ‘속량’이나 ‘구속’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11을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 하였다. 이 구절은 『개역』에서는 ‘구원’ 대신에 ‘속량’이라고, ‘속량’ 대신에 ‘구속’이라고 썼던 부분이다. 원어로는 전자가 ‘파다(פָּדָה)’, 후자가 ‘가알(גָּאַל)’이다. 두 단어 모두 ‘값을 지불하다’는 맥락의 ‘속(贖)’의 의미가 분명한 단어이다. 구원이라고 하면 ‘속’의 의미가 삭제되어 버린다.<sup>4)</sup> 하지만 예레미야 31:10에 나라가 망하여 흩어진 신세에 대한 상황이 정확히 나오므로 11절의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속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후자도 ‘강한 자’를 물리치고 이겨서 구해낸다는 의미가 명확하므로 ‘구속’이라고 쓰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즉 『개역』의 표현이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호세아 13:14를 함께 보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라고 썼다. 앞서 예레미야 31:11처럼 한 절에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고 원어도 예레미야 31:11과 똑같이 전자가 ‘파다(פָּדָה)’, 후자가 ‘가알(גָּאַל)’이다. 이를 참고할 때 예레미야 31:11도 호세아 13:14처럼 ‘속량’과 ‘구속’으로 다시 고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 제안한다.

이밖에도 신약성경 대부분에서 ‘속량’으로 기록된 것은 ‘구속’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누가복음 1:68; 2:38; 21:28; 24:21 등 대부분이 그렇다.

4) 번역자 혹은 개정자가 속량/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알면서도 고심 끝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속’이라는 개념어가 성경 전반에 나오고 이를 대처할 보다 쉬운 현대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일부만 ‘구원’ 등으로 바꾸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속’이라는 개념어가 해설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단어이므로 이에 대한 규칙은 명확해야 오히려 독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 3.2. 속전, 속물

속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명확할 때 속전이나 속물이라는 단어를 쓰자. 앞서 말한 대로 속을 위해 바친 돈을 속전, 속을 위해 바친 물건을 속물이라 한다. 물론 둘을 구분하지 않고 ‘속을 위해 바친 것’이라는 의미로 둘 중 어느 것이나 통용해도 되지만 할 수 있으면 구분한다. 그리고 이 용어는 공식 법률 용어로 조선시대부터 내내 정확히 쓰이던 단어이다.

현재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 21:11; 30:12 등에서 ‘속전’을 명확히 사용하였다. 이에 맞추어 다른 부분에서도 통일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 21:30은 ‘속죄금’이라 썼으나 속을 하기 위한 돈이므로 ‘속전’이라 써야 정확하다. 같은 장의 11절에서도 ‘속전’이라 썼다. 이사야 43:3의 경우 ‘속량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종’이 ‘양인’이 된다는 맥락이 없으므로 ‘속량’이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속을 위해 바치는 물건이므로 ‘속전’ 혹은 ‘속물’로 써야 옳다. 혹은 ‘대신’한다는 맥락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대속물’로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대속물의 용례는 욱기 33:24에도 있다.

### 3.3. 대속

‘대속’이 ‘구속’, ‘속량’ 등과 같은 의미인 줄 알고 쓰는 분들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속’의 **하위 방식** 중의 하나가 ‘대구속신’, 즉 ‘대속’이다. ‘대속’이라는 용어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뚜렷할 때만 쓴다. 그리고 ‘대신’은 동등한 ‘생명체’로 동등한 ‘생명체’를 대신한다는 의미이지, ‘물건’으로 ‘생명체’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본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때에 ‘대구속신’을 한다. 이때 핵심은 ‘같은’ 것으로 ‘같은’ 것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같은 성별,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야 ‘대신’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이 ‘대신’의 의미가 강조되는 부분에 ‘대속’을 사용하되, 물건에 대해서는 ‘대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물건’은 그냥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속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뿐이다. 한 사람을 다른 동등한 사람으로, 한 짐승을 다른 동등한 짐승으로 동등하게 대신 바꿀 때에만 ‘대속’이라고 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0:15-16에서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 너는 이스라엘 자

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라 했다. 이 구절에서는 ‘생명’과 ‘반 세겔이라는 돈’, ‘속전’과 ‘생명’이 나온다. ‘사람과 사람’, 혹은 ‘동물과 동물’을 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생명’의 값일 뿐이니 ‘대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냥 ‘속하다’라고 써야 정확하다. 실제로 『개역』에서는 이 두 구절을 ‘속하기 위하여’, ‘속하리라’라고 썼다.

출애굽기 13:13-14는 나귀라는 ‘짐승’을 양이라는 ‘짐승’으로 값을 치르므로 ‘대속’이다. 양이라는 ‘생명체’를 사람의 첫 아들이라는 ‘생명체’로 바꾸는 것이므로 ‘대속’으로 쓸 수 있다. 민수기 3:49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값을 치르므로 ‘대속’이라고 한 현행 『개역개정』의 표현이 적합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34:20; 민수기 18:15; 욥기 33:24; 마태복음 20:28; 마가복음 10:45; 갈라디아서 1:4에서 ‘대속’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역개정』에서 ‘대속’으로 표현된 구절 중 몇몇 구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라 하였는데, 이 구절은 ‘대신’이라든지 ‘동등한 이로 바꾸다’는 의미는 없고 ‘구하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구속된 것은’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개역』에서도 그렇게 썼던 구절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민수기 18:16, 욥기 19:25, 디모데전서 2:6에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욥기 19:25는 ‘대속자’ 대신에 ‘구속자’, 디모데전서 2:6은 ‘대속물’ 대신에 ‘속전’이나 ‘속물’로 고쳐야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욥기 19:25는 사실 『개역개정』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구속자’라고 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대속자’로 고쳤으나, 전처럼 되돌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개역』에서도 이 구절을 각각 ‘구속자’, ‘속전’이라 썼다.

일일이 모든 구절을 다 살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몇몇 구절의 수정을 제안해 본다. 덧붙여, 표현의 통일성을 위하여 출애굽기 29:33의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라는 구절의 ‘속죄물’은 ‘속죄제물’이라고 했으면 한다. 레위기 4:3, 8; 5:9에 용례가 있으므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 4. 마치며

『개역개정』의 개정을 논의하는 이즈음에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현대말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한자어라고 하여 무조건 바꾸거나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이 한자를 전에 비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말의 특성상 한자어를 배제할 수 없다. 사실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이해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말 주표제어 가운데 한자어의 비중이 50%를 훨씬 넘는다.<sup>5)</sup> 그러니 한자어의 사용은 우리말 사용에서 당연한 일이다.

개념어의 핵심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한자어 동음이의어가 있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구속’을 ‘속량’으로 바꾸는 일 같은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 **‘속’ 같은 단어는 다른 쉬운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개념어이므로 오히려 명확히 잘 설명하는 데에 힘써서 결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용어는 그 규칙에 맞게 적어 놓아야 독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혹시나 동음이의어 때문에 오해할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일부만 특정 단어로 바꾸어 버리면 전체 틀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주게 된다. 핵심 개념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사람들이 잘 알도록 만드는 데 힘쓸 일이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4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3일)

5)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한자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답한 내용이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으로 표제어 44만여 개 중 57%가 한자어이며,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복합어를 더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간다는 답변이었다.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06491](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06491)